

# Open Doors

2020. 04. Vol. 216

박해와 선교현장

미얀마 *Myanmar*

부활절 캠페인

2020 “희망의 씨앗”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 빛진 한국교회와 빛 갇기

김영우 목사 (헤림교회 담임, 한국오픈도어 이사)

故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서울의 영락교회에 가면 마당에 ‘김응락 장로 순교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906년 평북 의주에서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15세에 세례를 받은 김장로님은 해방 전에 신의주에서 포목상을 경영하면서 큰돈을 벌어서 미션스쿨인 일신학교를 설립합니다.

해방 후 신앙을 찾아 서울로 온 장로님은 종로에서 다시 포목상을 경영하면서 자신처럼 북한 출신인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영락교회의 전신인 베다니전도교회를 세웁니다. 1945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북한 출신이었던 영락교회는 점점 부흥하여 1950년 6월 4일 석조건물인 영락교회를 세우고 헌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헌당한지 20일 만에 6.25가 터져 영락교회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지만 김응락 장로님은 교회를 버리고 피난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자신은 교회를 지키고 있겠노라고 말하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며 교회에 남게 됩니다.

곧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던 장로님은 그들에 의해 수감되게 됩니다. 예배당은 무기고로 사무실은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던 북한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이 서울로 밀려오자 수감했던 김장로님을 사살하고 후퇴합니다.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 의해 장로님의 마지막 장면은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순교하시던 날, 북한군들이 포로로 잡고 있던 장로님을 교회마당으로 데리고 나오자 죽음을 직감하신 장로님은 계단을 오르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려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를 부르셨습니다. 북한군이 끌고 마당으로 가려고 할 때 김장로님은 북한군에게 교회당에 들어가 잠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북한군이 기가 막혀할 때 그는 잠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일어섭니다. 그때 북한군이 기관총으로 그를 향해 쏘았습니다. 장로님의 나이

45세이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북한출신의 성도들의 눈물과 생명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6.25전후에 신앙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우리들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다 북한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앙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영적 조상들입니다. 영락교회의 한목사님을 비롯하여 충현교회의 김창인 목사님, 동도교회의 최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6.25이후의 한국교회를 이 땅에 굳게 세웠습니다. 한국교회는 북한의 성도들에게 빛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6.25전쟁으로 분단 된지 70여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남쪽이 그 빛을 갇아야합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봉수, 칠골교회만이 덩그러니 선전용으로 서 있는 북녘땅에 한국교회는 빛을 갇아야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교회의 숙제인데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세계 오픈도어선교회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힘을 다해 복음의 씨를 북녘에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동참하는 것이 사랑의 빛 외에는 빛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경직, 김응락 보다 조금 늦게 남쪽에 도착한, 약 33000명의 새터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 오픈도어선교회에 교회와 개인이 후원하는 일, 무엇보다 북녘과 그곳을 위해 사역하는 이들을 위해 시간을 정해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그런 빛 갇기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숙제를 끝내고 하늘에 도착했을 때,

저 북한의 지하와 감옥과 강제노동 탄광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북녘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 않도록 빛을 갇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을 복음화하라! 북한의 영혼들에게 성경을!

## CONTENTS

-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22)
- 06 박해와 선교 현장  
미얀마 (Myanmar)
- 10 미얀마 현장 스토리 1  
로항야 난민촌의 MBB크리스찬들
- 13 미얀마 현장 스토리 2  
미얀마 기독교 소수민족 ‘카친족 여성들’, 중국으로 인신매매
- 16 세계 여성들이 겪는 박해  
“세계통계의 가장 큰 갭” - 박해받는 크리스천 여성
- 18 국제오픈도어 부활절 캠페인 - 2020 “희망의 씨앗”
- 20 뉴스와 업데이트
- 22 후원자 스토리 -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속의 묵상
- 23 오픈도어 후원 캠페인  
알림광고



04



06



10



13



18

### OpenDoors 2020년 04월호 | 통권 216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박미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결트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나의 출애굽기 (22)

드보라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어떤지 눈으로 볼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최초의 한국구경은 국정원에서 주관한 도시 체험이었다. 쉽게 말하면 서울 도시 투어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우리가 조사받던 곳은 외진 시골이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나서는 길에 보이는 풍경은 남한의 농촌 모습이었다. 그런데 풍경은 시골인데 집들이 내가 아는 것과 모양이 많이 달랐다. 특히 굴뚝이 안 보였다. 너무 궁금해서 안내해주는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집에 굴뚝이 없어요? 굴뚝도 없이 어떻게 밥을 해먹어요?”

내 질문을 들은 선생님은 웃으면서 여기서는 가스, 보일러로 요리도 하고 난방도 한다고 알려주셨다. 나무를 때서 밥을 해먹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농장도 깨끗하고 눈에 커다란 흰 덩어리가 있는데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벼단을 흰 비닐로 묶어 놓은 것인데 나중에 소가 먹는다고 했다. 너무 신기했다. 북에서



〈사진: 추수가 끝날 무렵 시골 마을에 보이는 흰색 덩어리는 '곤포 사일리지(Baling silage)'로 벼단을 단단히 말아놓은 것이다. 벼단은 공기와 차단된 상태에서 발효되어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져 소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훌륭한 사료가 된다.〉

는 비닐 방막도 없어서 고생했는데 벼짚을 비닐 방막으로 묶다니... 생각했던 것보다 남북의 생활 수준 차이가 커서 깜짝 놀랐다. 북에서는 자본주의는 악이며 썩어빠진 것이고 사회주의가 최고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생활 수준 차이가 나다니... 나도 모르게 '우와'라는 감탄사와 함께 “야 자본주의 만세다 만세”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자본주의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다.

하나원에서 나와서 배치받은 집에 드디어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달린 아파트에서 살다니 기적 같았다. 평생 상상하지 못했던 깨끗하고 시설 잘된 집에 들어가게 되니 내가 중국에서 십수년을 해매고 집을 떠나고 생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붕 뚫다.

정착도우미 선생님을 통해서 핸드폰을 개통했다. 개통하자마자 나는 중국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중국에서는 나를 숨겨야 했고 누구한테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중국 친구에게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중국 친구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니 북한 사람이었나?” 하며 되물었다.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미안하다 하며 한국 오면 놀러오라고 했다.

들뜬 기분이 진정되니 가족 생각이 들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애들, 우리 부모님... 아무리 힘들어도 데리고 와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 중국에 잠깐 나왔던 막내 동생을 통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는 특히 관절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신다고 했다. 길거리를 다니며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보며 ‘한국에서는 저렇게 좋은 길에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하시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머니도 빨리 치료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다행히 막내동생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들어갔으니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셈이다. 이 사실이 나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한국에 왔으니 교회를 맘껏 가고 싶었다. 몇몇 교회를 기웃거렸지만 영 마음을 붙이지 못하던 중에 중국에서 같이 성경공부 하던 조선족 언니를 만나서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갔다. 주일에배인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마음에 너무 와 닿았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 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도저히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바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어지는 찬양도 내 마음을 축축히 적셔주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어서 교회에서는 주일에배 중간에 북한을 위해 기

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얼굴도 모르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몽클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한국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덕분이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교회에서 주일마다 평평 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교회 갈 때는 나를 단정하게 차려 입고 화장도 하고 가는데 마스크라가 번져서 엉망이 될 정도로 울었다. 난 독한 성격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독한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눈물이 흘렀다. 아무리 단단하고 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에 오기 전에 걱정했던 것 중 하나는 혹시나 남한에 가서 타락하고 돈과 세상에 빠져 살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부터 서원기도를 드렸다. 남한에 가면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평생 주님 일만 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서울생활을 해 나가면서 남한을 잘 살게 해준 자본주의지만 그만큼 유혹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나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계속)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 미얀마 Myanmar



인구 : 54,336,000 명

주요 종교 : 불교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4,322,000 명 (8%)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0- 19위, WWL2019- 18위

기독교박해 지수 : 73점

주 박해 요인 : 종교적 민족주의, 군과 반군들, 범죄조직 네트워크, 조직화된 부패

## 미얀마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미얀마에서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는 주된 원인은, 미얀마가 다른 소수민족들을 배제하기 위해 국교인 불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반군과의 전쟁이 특히 카친(Kachin), 샨(Shan), 카렌(Karen) 주의 크리스천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이 전쟁은 널리 알려진 로힝야족의 보도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지만, 확산되고 있는 박해상황이다. 비록 몇 달간 잦아 들긴 했어도, 계속되는 전투들로 인해서, 공격받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알 수 있는 사실은, 북부 샨 주에서 미얀마 최대의 반군

무장세력인 '와 주 공산연합군 Communist United Wa State Army (UWSA)'이 크리스천 박해 폭력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공동체들은, 오직 불교만 있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기독교 가정들이 공동체의 수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크리스천들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별히 시골 지역에서는 비전통적인 교회 모임들도 반대에 부딪히는데 주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급진적인 불교 승려들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같지만 이조차 혼선적이다. 그 예로, 지난 1년 동안 급진적인 승려들이 군대의 지지를 받아온 것이 더욱

분명해졌고 정부의 금지 명령은 무시되었다.

## 미얀마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카친(Kachin)과 샨(Shan)주에서의 치열한 전투로 인해 1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강제적으로 집을 떠나 식량과 보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캠프에 살고 있다. 교회들은 감시당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표적이 된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집이나 일터에서 만나 몰래 예배를 드린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교회를 짓는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2019년 1월과 2월에, 라킨 주에서, 한 교회 목사와 장로가 실종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아라칸 반군에 의해 납치되어 살해당했다고 한다. 장로의 시신은 발견되었으나 목사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은, 불교도가 아니어도, 수업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불경을 암송하고 불교식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크리스천의 자녀들은 교사들에 의한 차별과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쉽다. 한 크리스천 학생의 경우,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시험준비 자료를 담당교사로부터 받지 못했다. 또, 땅을 판 재산 분배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형제는 제외되었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미얀마 크리스천들은 개인과 공동체, 종족과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박해상황에 직면한다.

## 미얀마 성도 이야기 "버드 크리스천(Bud-Christ)"

"제 이름은 테인입니다. 4년 전에, 불교 지도자들은 더욱 작정을 하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불교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불교사원에 매주 일요일마다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몇 아이들은 더 이상 제가 인도하는 주일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이웃들도 제가 이 동네에 교회를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대신, 저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큰 집을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을의 9가구가 우리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이웃들이 이 집에 오는 성도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버드 크리스천(Bud-Christ)= 불교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자를 모욕하는 단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갑자기 이웃이나 정부당국이 찾아와 예배를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하고 대

비하고 있을 때는 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놓고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너무 외진 곳이어서 이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항상 잊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얀마의 주된 박해 요인

### 1.종교적 민족주의

미얀마는 불교가 지배적이며 미얀마 인구의 다수(약 60%)는 버마족이다. 버마족은 바마르(Bamar)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불교도와 동일시된다. 이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으로 낙인 찍혀 위험하게 된다. 불교는 이 나라 문화에 깔려 있다. 그리고 나라를 순전한 불교 국가로 유지하기 원하는 불교 공동체들이 있다. 흔히 급진주의 불교도들이지만 어느 정도 정부도 이를 용인하고 지지한다.

불교 승려들이 2007년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시위를 주도하였다. 그 이전에는, 급진주의 불교단체들도 정치에 많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969'운동(후에 'Ma Ba Tha'-민족종교 보호를 위한 애국연합'으로 뒀)이 출현하면서, 급속히 변했다. 이 단체는 민족주의 아젠다를 가지고 동료 종교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이들은 2015년 8월, 초대 자유민주선거 직전에, "인종과 종교 보호법"을 도입했다. 이 법의 최우선적인 타겟은 무슬림, 특히 방글라데시와 접경하고 있는 라킨 주의 로힝야였다. 정부는 마바타MaBaTha를 금지했으나, 마바타는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났고, 2018년 다시 금지를 당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지부들은 금지 명령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바타 명칭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소위 "인종과 종교 보호법"의 채택은 마바타MaBaTha와 같은 민족주의 불교단체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이 법이 주로 라킨 주 무슬림들을 겨냥한 것이라 해도 크리스천들도 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개종을 하려면 여러 정부 부처에 알려야하는 것을 포함해서 행정 절차들을 밟아야 한다. 또 불교도가 타종교인과 결혼하려면 상대가 불교로 개종을 해야 한다. 이는 불교도 여성을 무슬림 남성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인데 다른 소수 종교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급진주의 불교는 기독교인들 보다 무슬림들을 타깃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미얀마를 떠나거나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급진주의 불교단체들이 다른 소수 종교 공동체들을 겨냥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지 보고에 의하면, 불교 승려들이 계속적으로 크리스천 소수공동체의 어린이들을 피어 불교사원으로 데리고 가고 개종을 시키고 있다. 다만 현재 승려와 급진주의 불교단체들에 의한 크리스천 박해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 2. 군과 반군무장단체들

불교단체들 보다 더 큰 박해는 군대와 무장단체들로부터 온다. 앞서 언급한대로 크리스천들이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 미얀마는 아직도 군대가 거의 독재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2008년 헌법에서, 국회의석의 1/4은 군인에게 배당되었으며, 국방장관, 내무장관을 비롯해서 정부요직을 군인이 차지한다. 군대는 소수종족 그룹들이 속한 반군들과의 전쟁을 격화시켰다. 미얀마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소수민족이지 다수 민족인 버마족(Bamar)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가운데 소수민족인 크리스천들이 피해를 입거나 박해를 당하게 된다. 또 미얀마 군대는 카친 침례교협회 회장(Dr. Hkalam Samson)을 법정 고소했다. 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얀마에 종교의 자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정 고소는 취하됐고, 회장 삼손 박사는 군 지도자들을 만나 진정한 평화는 항상 희생을 의 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싸움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 있는 이상 희생이라는 해결책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라킨 주에서 계속되는 라킨 족 반군 아라칸군(Arakan Army)과의 싸움은, 미얀마의 민족주의가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강한 종족 성향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라칸군 전사들도 불교도들이지만 버마족의 지배에 반대하는 것이다.

미얀마는 여러 소수민족 반군들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이다. 잘 알려진 반군 무장단체로,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무슬림"과 "아라칸군Arakan Army-불교"가 있고, 미얀마 최대 반군에 속하는 "카친 독립군 Kachin Independence Army-기독교"과, 최대 무장단체 "와 주 연합군 United Wa State Army (USWA)"이 있

다. UWSA는 원래 공산주의 연합군으로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데 마약거래로 악명이 높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계속해서 산 주(중국과 접경)의 기독교공동체에 맹렬히 반대하며 박해를 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수백개의 교회가 폐쇄되었고, 여러 명의 크리스천들이 납치되거나 추방당했다. 이들은 "선교사들"로 인식된 크리스천 그룹들을 타깃으로 했다. 주로 라후 침례교협회 또는 카친 침례교협회와 같은 침례교 단체들이다. 45만 명의 주민들이 사는 와(Wa) 지역은 반(半)-자치구로서 미얀마 정부에서 직접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된 박해요인은 종교적 민족주의가 아니고 이 무장 세력이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소위 "접경 지역 청소년 개발 훈련학교들(Na Ta La 스쿨)"을 무료로 운영하며, 소수민족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학교들은 소수민족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불교로 인도하는데 이용된다. 군대는 소수민족 청소년들에게 마약중독을 장려하여 소수민족의 소요를 약화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이는 카친 주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카친 주는 아시아의 양대 아편생산 지역에 속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아편생산지 중 하나인 "골든 트라이앵글"의 일부이기 때문에 미얀마 군과 반군들은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마약생산과 마약밀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 사업에 방해가 되면 누구나 위험하다. 이 지역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크리스천이 다수인 산 주와 친 주, 카친 주는, 미얀마의 가장 큰 상품인 비취옥과 목재 생산지이다. 이 사업은 흔히 군인이나 고위급 정치인들이 운영한다. 군대가 관여하는 이 사업들은 엄청난 수입을 낳는데 때로는 군대와 반군세력들 사이에서 이익을 나눠 가지며 타협을 하기도 한다.(UN2019 보고) 따라서 이곳의 크리스천들은 군대로부터 오는 심한 압박 하에 있다.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짐꾼으로 이용된다.

## WWL2020 미얀마 박해 보고 (2018년 11월 1일~2019년 10월 31일 기간)

- 크리스천 살해 : 2019년 1월과 2월, 라킨 주의 목사와 장로가 각각 살해됨. 2019년 3월 카친 주 성도 살해됨.
- 크리스천 공격 : 115건. 많은 경우, 불교나 이슬람에

서 개종한 크리스천 대상. 친족, 또는 군이나 무장단체들에 의한.

- 크리스천 체포 : 11건. 군이나 무장단체. 2018년에는 UWSA에 의해 100명 이상이 납치됨.
- 교회 공격 : 204건. 2018년 9월, UWSA가 기독교를 억제할 목적으로 200개 이상의 교회들을 강제 폐쇄시킨 후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폐쇄 상태임. 2019년 9월에 라후와 카친 침례교회들은 다시 열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나, 산 주에서 UWSA가 장악한 지역의 50개 이상의 교회(카톨릭 포함)와 학교 건물들은 폐쇄 상태.
- 크리스천 집/사업장 공격 : 1건. 시골 마을 크리스천 리더의 집이, 모임을 갖는 중에, 불교 폭도들의 공격을 당했다.(보안상 상세내용 생략)

## 미얀마 개신교회

16세기에 카톨릭이 전파되기는 하였으나, 개신교는, 잘 알려진 대로 아도니람 저드슨이 최초의 미얀마 선교사이다. 그는 침례교 소속 선교사로 1813년에 미얀마 양곤에 도착하였고,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40년을 섬겼다. 마침 올해의 부활주일인 4월12일은 170년 전(1850년), 아도니람 저드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육신은 뱀굴 만 바다에 수장된 날이다. 미얀마인들 외에 카렌족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들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사역을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다. 미얀마 개신교회는 19세기 중반에 크게 성장했으며 주로 침례교회들이다. 1966년에 버마 정부는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했으나 그때는 이미 교회가 자립한 단계였다.

대다수가 불교도인 미얀마 국민들은, 카친, 친, 산, 카렌 부족과 같은 소수민족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를 의혹의 눈으로 본다. 이러한 의혹은 이제 더욱 커질 수 있다. 2014년 국가 인구조사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독교 인수는 1973년 조사에서 4.6%였는데 2014년 센서스에 의하면 6.2%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기독교인이 다수인 카친 주가 전쟁중인 관계로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보다 높다.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WCD)에 의하면, 미얀마 기독교인 수는 전체 인구의 8%이다. 이보다 더 높게 잡기도 한다.

미얀마 기독교인 현황	
카톨릭	658,000명(15.2%)
개신교 기성교단	2,668,000명(61.7%)
독립교단	672,000명(15.5%)
무소속	323,000명( 7.5%)
합계	4,322,000명(100%)

## 미얀마를 위한 기도와 후원

- 박해 받는 소수민족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카친족, 산족, 카렌족, 친족
- 이슬람교나 불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개종을 하면, 가족, 친구, 이웃들로부터 믿음을 철회하라는 강한 압력에 직면합니다. 최근 도입된 법률로 인해, 비록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로의 개종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감내할 용기와 인내심을 갖도록, 그리고 미얀마에서 종교의 자유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오픈도어는 미얀마의 박해받는 교회를 아래와 같이 돕습니다.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 성경 및 훈련자료 배포
  - 제자훈련 프로그램
  - 목회 및 지도자 훈련
  - 생계 지원
  - 가정과 결혼 장려 프로그램
  - 어린이 및 청소년 훈련
  - 박해 대비 세미나

“기독교인인데도 저는 여전히 몰래 몇 가지 정령숭배 미신행위도 하고 스님에게 손금을 보아달라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해대비 훈련에 참가한 후, 저는 저의 영성이 너무 천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교 승려들에게 제 삶의 방향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 미얀마 크리스천, 흘레(Hle) -



## No Place Like Home, No Place To Call Home 로힝야 난민촌의 MBB크리스찬들

로힝야족은 미얀마 라킨(Rakhine) 주에 사는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미얀마에서 무슬림들은 시민권이 없고 지속되는 박해 때문에 국외로 떠난다. 2013년, UN은 로힝야족이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소수민족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미얀마는 1982년 제정된 법에서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로힝야족 대신 방글라데시 불법이민자들과 부르거나 '벵갈인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2016년 10월, 무슬림들이 국경초소를 공격하여 9명의 경비병을 죽이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무슬림에 대해 더욱 적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미얀마 군은 로힝야족에 대해 '인종 청소'에 가까운 학살을 자행했다. 로힝야족은 대량학살을 피해 육로로 또는 바다를 통해 이웃 국가들로 탈출했다. 이들에게는 법적인 정당한 명칭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도 없다. 2016년 초 기준으로 미얀마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로힝야족이 살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약 70

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난민캠프로 갔다. 현재는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110만 명의 로힝야 무슬림들이 있다고 한다.

이 로힝야족 가운데, 작은 교회가 있다. 이들은 무슬림에서 개종을 하였기 때문에 같은 로힝야족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국인 미얀마에서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한다. 이 로힝야족 크리스찬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지난 1월, 로힝야 무슬림 테러리스트 단체가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의 MBB(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성도들을 공격해서, 약 25가정 200명의 크리스찬들이 거처를 잃었고, 25명은 심각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실려가야 했다. 공격자들은 날카로운 무기로 크리스찬 가정들의 텐트를 찢고, 내부의 물품들을 약탈해 갔으며, 교회 지도자와 자녀까지 납치해갔다. 이 무슬림 단체는 알카에다나 IS 같은 외국 이슬람단체 소속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한 수사 요구에 대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하겠다고 하

지만 로힝야들은 시민권이 없어 고소를 할 수가 없다.

한편, 지난 1월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학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ICJ는 미얀마에 국제법적인 의무를 부여하며 4개월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로힝야족 무슬림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로힝야족 내의 소수인 크리스찬들의 어려움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질 만하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1월말, 유니세프(UNICEF)와 협력하여,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에게도 정규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픈도어는 이 가운데에서 로힝야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당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도록 기도와 실제적인 지원으로 함께 하기 위하여, 로힝야 난민 크리스찬들을 위한 30일 기도를 제안하고 전 세계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 로힝야 난민 성도들을 위한 30일 기도

**DAY 1:** 로힝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적은 수의 무리인데 사방이 적대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료 로힝야들은 이들이 이슬람을 떠난 반역자들과라고 증오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DAY 2:** 로힝야의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있기를 기도합니다. 박해에 직면해서도,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DAY 3:** 미얀마에 있을 때 경험한 인종 학살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같은 로힝야 동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치유되고 위로를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DAY 4:** 로힝야 성도들의 생계를 돕는 수입창출 프로그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들로

하여금 가족을 부양하고 자립하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프로그램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DAY 5:** 난민들이 제 3국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곳에 빨리 정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환영을 받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DAY 6:** 난민캠프에 식수와 기초의료,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DAY 7:** 난민 어린이들, 특히 이들의 공립학교 입학이 거절되고 있는 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들이 배우고 성장하여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미래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DAY 8:** 난민 어린이들의 글자교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영어와 아랍어와 같은 외국어를 배우는데 지혜를 주셔서 빨리 잘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언어 습득으로 인해 미래에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고 더 좋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DAY 9:** 로힝야 어린이들을 위한 글자교실 교사수급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자들을 불러모아 주셔서 아이들을 잘 돌보며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DAY 10:** 대학으로 진학하는 글자교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공부에 전념하여 대학진학의 기회까지 갖게 되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계속 공부를 잘 하여 더 넓은 기회의 문들이 열릴 수 있게 하옵소서.

**DAY 11:** 힘든 삶에서 도피하기 위해 물질남용의 덫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예수 안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성도들을 보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들이 중독의 사슬을 끊고 나오게 하옵소서.

**DAY 12:** 로힝야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많은 로힝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게 하옵소서.





**DAY 13:** 로힝야 부족어 성경번역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업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힝야족에게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프로젝트가 마치기까지 어떠한 방해도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DAY 14:** 로힝야 교회는 자기 부족어로 된 신앙자료가 부족합니다. 이들에게 어린이성경과 찬송가책과 같은 신앙자료들이 공급되도록 기도합니다.

**DAY 15:** 일부 성도들은 계속 신앙을 숨기고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DAY 16:** 로힝야 난민촌 가까이에 있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로힝야 족들에게 다가가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돌보게 하옵소서.

**DAY 17:** 로힝야 난민촌 지역 교회가 이들을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로힝야 난민들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DAY 18:** 전통교회들과 로힝야 성도들 사이에는 교파적, 문화적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연합과 화평, 좋은 동역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DAY 19:** 로힝야 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방법을 개발하여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에서 성장하도록 잘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DAY 20:**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건강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도들이 믿음을 더 배우고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DAY 21:** 로힝야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 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들이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DAY 22:** 로힝야 성도들을 핍박하는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해자들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과 공동체 리더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로힝야 성도들의 담대한 복음증거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DAY 23:** 로힝야 교회 가운데 더 많은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리더들을 일으켜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DAY 24:** 로힝야 교회 리더들 사이에 연합과 일치 있게 하시고, 난민캠프 공동체 지도자들과도 화평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문화적 교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동역해야 할지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DAY 25:** 정부 공무원들이 로힝야 난민들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허가해 주도록 기도합니다. 로힝야 프로젝트들을 함께 하면서 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DAY 26:** 로힝야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이끌리어 나오게 하옵소서.

**DAY 27:** 로힝야 족이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를 기도합니다.

**DAY 28:** 성도들이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주님께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존재가 공동체에 화평과 화합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DAY 29:** 더 많은 로힝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로힝야 공동체에 친히 사랑과 긍휼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DAY 30:** 로힝야 족과 같은 소수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려고 모이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박해받는 로힝야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그분들은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받는 성도들의 편에서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 미얀마 기독교 소수민족 '카친족 여성들', 중국으로 인신매매

- Human Rights Watch 여성인권 담당관이 피해여성들을 만나다 -

북부 미얀마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 오랜 동안 한자녀 정책으로 남녀 성비의 불균형 때문에 중국에서 남자들이 아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곳에 "신부들"로 팔려가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정부와 카친족 독립군, 카친 주와 북부 산 주에 있는 여러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사이에 오랜 충돌이 있어왔다. 이 지역들은 중국 접경지역들이다. 2011년에, 미얀마 군대는 17년간의 휴전상태를 깨고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카친족과 기타 소수민족들 중 10만 명 이상이 국내난민이 되었다. 우리가 만난, 인신매매를 당했던 여성들도 그 가운데 포함된다.

### 어떻게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가는가?

많은 카친족 남성들이 정부군과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여성들이 생계를 도맡아야 한다. 또 장녀가 집안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한다는 문화적인 기대도 있다. 난민캠프에는 일자리가 없고 미얀

마 정부가 구호물품 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난민캠프들이 중국 국경과 가깝고, 여권 없이도 국경을 넘기가 쉽다. 중국의 많은 고용주들은 미얀마 사람들을 고용하기 원한다. 이러한 상황이 인신매매의 큰 기회를 제공한다.

보통 미얀마에서 누군가가 농장이나 식당에 여성 일자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일자리들은 실제로 있을 때가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우리가 만난 37명의 여성과 소녀들의 대부분은 이런 종류의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들을 모집한 사람들은 인신매매단으로 결국 이들을 중국 가정들에게 팔아넘겼다.

### 왜 중국 가정들은 미얀마에서 여성들을 사오는가?

중국은 심각한 성비의 불균형이 있다. 주로 1979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에 기인한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노후를 책임지는 반면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다. 이는



한 자녀 밖에 없다면 아들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오늘날 중국에는 여성 보다 남성이 3천 만~4천 만 명이나 더 많다. 따라서 많은 남자들이 아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신부들" 인신매매가 생겨나게 되었다.

### 인신매매자들은 누구인가?

우리 조사에 의하면, 인신매매자들은 결코 낮은 외부인들이 아니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공부반에서 만났었던 친구였다. 많은 경우, 친척들이 팔아넘겼다. 몸값은 미화 3,000달러에서 13,000달러까지 걸쳐있다고 한다. 이 돈은 인신매매자에게 주어진다. 한 사람은 이를 미얀마에서 산출되는 비취 거래에 비유했다: "비취 옥 품질이 좋으면 우리가 사서 중개상에 팔고, 거기서 또 다른 중개상으로 팔리고 그러잖아요. 소녀들도 마찬가지로요. 여러 브로커를 거치게 되지요"

### 이 여성들과 소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을 모집한 사람이 중국까지 안내한다. 상당수는 가는 동안에 약물이 먹여져서 잠이 들었다가 국경을 넘어 폐쇄된 방에서 깨어나게 된다. 한 젊은 여성이 들려준 체험은 전형적인 경우였다. 중국에 가면 수입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울케 언니가 말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돈이 너무 필요했다. 중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울케 언니는 멀미약

이라고 하며 약을 주었다. 깨어나보니, 손은 묶여있었고, 울케언니는 그녀에게 그녀가 결혼을 해야한다고 말하고는 그녀를 그 집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 집은 그녀를 산 가정의 집이었다. 그녀는 다른 방으로 옮겨져 또 다시 묶임을 당했고, "남편"이 매번 식사를 갖다 주고 그녀를 강간했다. 그녀는 마침내 아들을 가졌다. 2년 후에 그녀는 아들과 도망을 쳤다. 그녀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칠 수 있었다는 점은 그녀의 경우가 특별한 부분이다.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여성과 소녀들은 한 방에 몇 일간,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갇혀 있었다. 때로는 임신이 될 때까지 갇혀 있었다. 많은 이들이 중국 가족들은 신부 보다 아이를 갖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아이를 낳은 후에 도망칠 수 있었다.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은 후에 원하면 떠나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우리가 만난 이 37명의 여성과 소녀들은 모두 도망을 쳐서 미얀마로 돌아왔다.

### 인신매매 건 수는 증가하는가, 아니면 감소하는가?

매년 얼마나 많은 수의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으로 팔려가는지 알기는 어렵다. 미얀마 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이민국으로부터 226건의 보고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여성 중 누구도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았다. 즉 실제 사례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다. 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또한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이, 카친 주의 충돌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믿는다.

### 이 조사가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우리는 3년 전에 이 조사를 시작했다. 이 여성들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다. 이러한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도 어려웠다. 대부분 카친 족은 크리스천이다. 그 중에 많은 이들은 신앙심이 아주 깊다. 혼외 성관계는 큰 수치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들은 비밀로 하고 있다. 또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안전의 문제도 있었다. 그래도 난민캠프 내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할 수 있



었다. 우리는 이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과 비밀을 지키면서 인터뷰를 하는 방법을 찾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 그러한 일이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나?

어떤 이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중국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수 년이 걸렸다. - 한 사람은 9년이 걸렸습니다. 12명이 18세 이하의 소녀였고, 그 중에는 14세도 있었다. 그 중 2명은 두 차례나 인신매매를 당했다. 한 여성은 자기가 중국 경찰서로 찾아갔다고 했다. 중국 경찰은 그녀를 추방해서 아무 돈도 없는 채로 국경에 버려두고 갔다. 그녀는 택시 기사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기를 간청했다. 중국에 온지 이미 5-6년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가족 중 일부는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마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가족 내에서조차도 비난과 정죄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 살아 돌아온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낙인이 찍힌 것에 너무 상처를 받아 마을을 떠났다. 수치심으로 인해 그냥 중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소녀들도 있다고 한다.

한 여성은 중국에 일하러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을 남편에게 설명했더니 남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사람들이 경멸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인신매매에서 탈출한 이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은 거의 없다. 며칠간 쉼터 제공과, 의료검진, 새 주민

증 발급이다. 소수 몇 명은 제한적인 경제적 또는 직업적 지원을 받았다.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일하는 시민 단체들이 있다. 그러나 이 단체들도 재원이 거의 없다.

### 중국과 미얀마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인신매매는 양국에서 모두 불법이다. 인신매매를 근절시키려는 몇가지 시도들이 양국에서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이들은 모두 자력으로 탈출했고, 많은 경우 양국 국경지대의 경찰들은 인신매매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미얀마 경찰에 수차례 찾아갔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더라고 한다. 거기에는 반-인신매매 담당 경찰도 포함된다. 중국경찰 역시 인신매매범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성들을 불법입국자 취급했다. 한 여성은, 중국 경찰이 그녀가 탈출한 중국 가족에게로 그녀를 다시 돌려보냈다. 그 가족으로부터 800달러의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 가장 인상에 남는 경우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탈출한 놀랍도록 용감한 여성들이 있다. 한 젊은 여성은, 17세에 인신매매되었는데, (중국인)남편에게서 휴대폰을 얻어 위챗(sns)을 이용해 카친족 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렸다. 갑자기 전세계 사람들이 그녀를 찾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챈 남편은 휴대폰을 뺏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었다. 결국 그 가족은 그녀를 놓아주었다. 이것은 가장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융통성과 창의성을 이용한 고무적인 이야기였다.





## “세계통계의 가장 큰 갭” - 박해받는 크리스천 여성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9일부터 20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하루행사로 축소된 가운데, 유엔사무총장은, 여성이 '세계 통계의 가장 큰 갭'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 남성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여성과 여성의 경험들은 계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통계에서 빠지는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숨겨진' 학대를 당하고 있는 크리스천 여성들에게 더더욱 해당됩니다. 이들은 신앙과 가난과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2013년에 종교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Heiner Bielefeldt)은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 가장 널리 행해지는 인권침해이며, 이는 잔인한 형태가 될수 있고, 많은 여성과 소녀들로부터 삶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오픈도어는 월드와치리스트2020에 근거하여 남

성과 달리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박해에 대해 더 심층분석한 연례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Gender-specific Religious Persecution Report 2020)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크리스천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가장 큰 두 가지 박해형태는 성폭력과 강제결혼입니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보고되었습니다:

- 남성들보다 더 여러가지 방식으로 불균형적으로 박해의 타깃이 된다는 점,
- 이러한 학대가 수치와 징표가 되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의 배척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수가 보고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점,
- 박해자들은 전통적 성역할과 금기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월드와치리스트2020 톱 11개 국가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이 위와 같은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산 죽음'입니다. 특히 이슬람이나 불교에서 개종했을 경우 가장 심합니다. 이러한 젊은 여성들은 숨겨지고 고립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고난은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크리스천공동체와 교회에서 조차

잊혀집니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과 강제이혼 또한 크리스천 여성들이 겪는 세번째로 빈번한 박해형태입니다.

오픈도어의 여성사역 담당자 헬렌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한 여성들과 소녀들이 겪는 고통이 평생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폭력과 강제결혼의 경우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이고, 거기서 벗어난다 해도 상처와 거절감이 평생갑니다. 수치로 인해 미래가 없는 삶이 되는거죠. 슬프게도, 크리스천공동체 내에서도 이들이 거절과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가 없는 삶이란 이들의 신앙공동체 내에서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라는 의미이죠."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 기독교에 적대적인 국가들에서 성적폭력은 소외된 공동체를 이용하는 "기회 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천 소녀인 '니마'는 마을의 폭력사태 때문에 가족들이 마을을 떠날 때 노예로 팔렸습니다. 박해자들은 그 틈을 타서 니마와 다른 60명의 소녀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약한 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마는 매를 맞고, 끌려가서 여러차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구출된 후에도 경찰은 그녀의 사건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019년 보고들은 기독교공동체를 억압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박해가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성박해는 묻히기 쉽고 박해자들에게 보복의 위험이 낮고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반도에서는 크리스천 여성 가사도우미들이 조용히 성적 착취를 당합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서는 민간 무장대들이 크리스천 마을의 여성들을 주적으로 공격하거나 납치해서 성적노예로 삼습니다.

한 예로, 나이지리아의 십대소녀 레아 샤리부는 2년 전에 보코하람에 납치된 110명 중에서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소녀입니다. 이유는 그녀가 기독교신앙을 포기할 것을 용감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2월 납치될 때 겨우 14세였던 레아는,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보코하람 우두머리들 중 한명에게 강제결혼을 당해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기독교박해의 이러한 성적박해, 교회를 잠식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여성을 집박에 나가지 못하게 가두거나 성적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크리스천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흔한 박해방법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간과될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게 되며, 박해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평범한' 일로 치부되고, 결국 교회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종교적 박해보고서는, 교회들이 그러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유를 가져오는데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 여성들과 공동체가 비극을 겪은 후에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국오픈도어가 발간한 크리스천 여성 박해 보고서에 대해, 영국 트루로의 주교(Rt Revd Philip Mounstephen)는 "아주 중요한 조사자료이며, 이 중대한 불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교회와 정부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오픈도어 관계자는 '이 보고서의 사실들은 전세계 교회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일깨운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천부적인 존엄성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로써 박해자들이 연약한 여성들을 타깃으로 공격하여 교회를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2020 “희망의 씨앗”

오픈도어는 글로벌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숨겨지고 배제되고 취약한, 박해 받는 크리스천들을 돕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숨겨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으로 박해를 당하는 크리스천 여성들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리키야는  
그날 밤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리키야는 집이 불에 타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아왔습니다.



리키야의 삶은 어려움과 상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그녀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이 그녀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사용하셔서 리키야를 그녀의 이름처럼 “주님에 의해서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오픈도어를 통해, 리키야는, 남편을 잃은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이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새 삶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여러분의 후원으로, 리키야처럼, 신앙과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중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은  
없어지고, 보코하람이  
우리 마을을  
장악했어요.  
우리는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여러분이 저를 구하러 왔지요.  
우선, 저의 트라우마 치유를 해주셨어요.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흔적은 영원히 남겠지만,  
상처의 아픔은 나아졌어요.”  
- 리키야, 북부 나이지리아 -



## ▶ 희망의 씨앗 후원 ◀

30,000₩ (€ 22)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농작물 씨앗과 농기구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아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140,000₩ (€ 104)	남편을 잃은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1년 식량과 주거,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450,000₩ (€ 338)	폭력적인 박해를 겪은 여성의 트라우마 긴급치료와 장기적 영적 치유과정을 지원합니다.

희망의 씨앗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케냐, 알-샤바브 무장괴한, 크리스천 승객 살해



▶ 케냐 북동부 만데라 지역 모래폭풍 모습

2월19일, 알-샤바브로 추정되는 무장괴한들이 소말리아 국경지역인 만데라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를 왕래하는 버스 승객 3명을 사살했다. 이들은 경찰복으로 위장을 하고 버스를 세우려고 시도했으나, 경찰이 아닌 줄 아는 버스 기사가 운행을 계속하자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타이어에 총을 맞은 버스가 기울어져 도랑으로 빠졌고 기사도 부상을 당했다. 괴한들은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크리스천 2명과 1명의 무슬림을 사살했다. 크리스천 2명은 이슬람 기도문을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슬림 1명은 크리스천들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살됐다고 전해졌다.

## 케냐, 무슬림 지역으로부터 크리스천 교사들 엑소더스

북동부 케냐 무슬림 지역(가리싸, 와지르, 만데라)에서 교사들이 대거 탈출하여 학교교육이 거의 마비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 탈출은 2018년 3월 이후로 처음이다. 이번 탈출은 지난 1월에 크리스천 교사 3명이 가리싸에서 알-샤바브에 의해 살해된 후에 촉발되었다. 1월에 이 지역 4,000명의 초중고 교사들 중 적어도 2,340명이 이 지역에서 전출을 신청했다. 교사들 외에도 거의 1,000명의 학교직원들이 떠났다. 알-샤바브는 온라인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비무슬림들이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그들을 축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이 지역에서 알 샤바브에 의해 32명의 크리스천 교사들이 살해됐다. 그리고 5년 전, 부활절 성금요일 저녁에, 가리싸 대학교에서 143명의 학생들이 알-샤바브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때문에 살해당했다.



▶ 2015년 이슬람 무장세력이 동료 20명을 살해하자, 시위하는 케냐 북동부 교사들

## 이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6명의 크리스천 보석/임시 석방



▶ 보석 석방된 메리(파테메) 모하마디

코로나바이러스 최다 감염국에 속하는 이란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2월말, 3월 초에 수감자 중 54,000명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그중 6명의 크리스천이 포함되었다. 여대생 메리(파테메) 모하마디도 그 중의 한 명이다. 빅터 목사의 아들인 라미엘 벤 타므라즈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또 한 명의 크리스천이 같은 날 풀려났고, 3월2일에 추가로, MBB크리스천 3명에게 36일간의 임시석방이 주어졌다. 메리와 다른 두 사람에게는 각각 \$2000, \$3000의 보석금이 부과되었다. 이번 임시석방은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크리스천

양심수들이 석방되지 못했다.

한편, 작년 7월부터 수감되어 있는 또다른 5명은 임시석방이 되지 않았다. 이들은 5년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1년형을 받은 다른 MBB크리스천(Aylar Bakhtari)은 이유를 알 수 없이 허가되지 않았다. 이들 수감자 가족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위험을 들어 장기 선고를 받은 이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이란, 5-15년형을 받은 5명의 크리스천 항소심 연기



▶ 좌로부터 빅터 목사와 사모 외 항소중인 이란 크리스천 3명



▶ 빅터 목사 부부와 아들 라미엘

아시아 이란인 빅터(Victor Bet-Tamraz) 목사와 그의 아내, 샴미람(Shamiram Issavi) 사모의 항소심이 다시 연기되었다. 3년 전에 빅터 목사는 10년 형을, 샴미람 사모는 5년 형을 받았으며, 동료 크리스천도 같이 2명은 10년, 1명은 15년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이다. 이란 법정은 번번히 다른 핑계를 들어 재판을 미루고 있다. 빅터 목사는 테헤란에 있는 아시리안 오순절 교회를 목회하다가 2009년에 강제폐쇄를 당한 후 가정교회를 시작했다. 한편 '가정교회에 소속되어 반체제선전'을 한 혐의로 4개월형을 받았던 빅터 목사의 아들 라미엘은 2월26일 석방되었는데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 크리스천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짧은 설교도 했다고 한다.

## 이란, 크리스천 에브라힘, 6년 수감, 2년 유배형에 11개월 추가



▶ 유배중인 에프라임

이란 남동부의 외딴 곳에서 2년째 유배형을 살고 있는 34세의 MBB크리스천, 에브라힘(Ebrahim Firouzi)이, 6일간 가족을 만나러 다녀왔다는 이유로, 11개월 추가 선고를 받았다. 유배 전에 에브라힘은 기독교를 전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6년 수감생활을 했다. 감옥에서 집으로 온지 두 주 만인, 2019년 11월12일에 유배형을 받았다. 유배된 곳은 자기집인 테헤란 근처에서 1000마일 떨어진 외딴 도시 사르바즈(Sarbaz)이다. 교통비는 자부담이고, 매일 그곳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가족을 만나러 가겠다는 에브라힘의 허가신청서는 처리가 되지 않고 구두로 받은 허가는 무효가 됐으며 이번 판결은 재심이 없는 최종심이어서 더욱 안타깝고 기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한편 에브라힘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아들과의 면회도 거절당한 채 돌아가셨다고 한다.



# Heart to Heart

후원자 스토리

##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속의 묵상, Timeless Lesson

- 네덜란드 오픈도어 H형제

우리는 지금 마치 비현실 속에 사는 것 같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후 처음으로, 어제, 주일 예배모임이 없었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다. 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보았다. 그리고, 북한을 떠올렸다. 70년 전에 교회들이 문을 닫은 후 아직까지도 열지 못하는 곳. 우리의 상황은 당분간이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이번 사태로 나는 그들과 더 가깝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생각해보았다.

국경이 폐쇄되고, 회사들도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주민들은 집에만 있으라는 지시를 받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의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실감되고 있다. 이 위기가 나쁘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축복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큰 고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의 한 교회 지도자, 황레이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해보자. 그 역시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

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전한다:

"우리는 50개 이상의 그룹이 있고 거의 모든 그룹들이 인터넷으로 모입니다. 30개가 넘는 그룹들이 하루에 2시간씩 인터넷으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요. 전보다 더 자주 모이는 거죠... 물론 모두가 집에 있어야 하니 전보다 더 시간이 많아져서 가능한 일이지요. 교회에서 모일 때는 일주일마다 두 번이었는데, 이제 매일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또 연로하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 온라인 모임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에는 소외감을 느끼고, 집에 홀로 있어야 할 때, 버림받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형제들 사이에 유대감을 더 가지게 되어 점점 더 활발하게 온라인 기도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것은 바이러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전, 중국의 전도자 왕명도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본다. 왕목사님이 소천하시기 몇 년 전에, 오픈도어 사역자 론이 만났는데, 목사님은 대뜸 '젊은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시오?'라고 물으셨다고 한다. 론이 기도와 성경공부 등 신앙생활을 열거하자 왕 목사님은 장난끼 어린 투로 '틀렸소'라고 말씀하셨다... 목사님은 다음날 이 고백을 들려주었다:

"내가 감옥에 갈 때 60세였어요. 한창 일할 때였지. 잘 알려진 전도자였고, 중국 전역에 전도집회를 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 또 책도 썼고 더 많은 책을 쓸 참이었지. 설교자이니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서 더 많은 설교문을 쓰려고 했구.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제 짊어진 감옥 독방에 앉아 있게 된거야. 펜도 종이고 없고, 성경도 다 뺏겨서 없고, 복음을 전할 대상도 없는 거야. 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를 주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진거지..."

왕명도 목사님의 질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행함으로의 교회' 보다 '존재로서의 교회'...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격리 상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묵상해본다.

## 오픈도어 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나" 고린도전서12:26

## "오픈도어 어린이 서포터가 되어주세요!"

1. 어린이박해지도(선교회로 신청)를 보면서 박해국가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2. 오픈도어 저금통(선교회로 신청)에 박해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헌금을 모아요.
3. 모아진 헌금을 아래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계좌로 보내요.
4. 오픈도어 어린이 서포터 기념품을 받아요.



어린이 서포터의 후원금은 전세계 박해국가 어린이성경 제작과 보급, 주일학교 훈련/어린이 캠프개최와 참가비용, 극심한 박해지역 어린이 미술치료/트라우마 상담 등에 사용됩니다. 어린이&청소년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알립니다

- WML2020 박해지도와 저금통을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박해지도는 어른용과 어린이용 2가지이며, 크기는 국2절 포스터 및 개인용 A4 사이즈 2가지 입니다. 신청: 02-596-3171 / 010-7548-3171 / opendoorkorea@gmail.com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300기도용사" 를 신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주간기도제목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010-7548-3171
- 오픈도어 '후원자 스토리' 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오픈도어 선물' 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odsk@opendoors.or.kr
- 월간 소식지와 기도월력을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상단메뉴 자료실 > 발행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관리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CMS이관 작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3월 후원금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신 분은 선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가운데 주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0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비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은행 및 계좌: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혹은 <input type="checkbox"/>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